

#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들뜬 '국고채 ETF'

### 신한투증 '분석플러스' 투자정보 구독하세요

#### 자산운용업계, 관련 시장 확대 기대

한국 국채의 WGBI 비중 2.22% 고령 국내로 75조~90조원 자금 유입 예상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 기대감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특의스체인지(FITSE) 리셀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는 블룸

버그-바클레이스글로벌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체권지수로 꼽히며, 미국·일본·영국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린다.

정부는 한국 국채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2.22%)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으로 향후 국내 시장에 75조~90조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관련 ETF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 ETF는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WGBI 지수 편입으로 관련 ETF 상품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WGBI는 만기 1년 이상, 50년을 제외한 국채를 대상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나라 국고채 ETF와 유사하다"며 "실제로 2022년 5월에 이 상품을 상장시키게 된 계기도 WGBI 편입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년 지수 편입을 앞두고 관련 상품 준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현재 국고채 관련 상품으로 'ACE 국고채10년 ETF'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준비 중인 ETF는 국고채 10년물 채권시장의 평균 듀레이션인 5년보다 긴 평균 듀레이션 8년 내외의 국고채 지수"라며 "긴 듀레이션으로 금리 하락기 높은 수준의 자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관련 ETF 3개(SOL 국고채 3년·10년·30년)를 운용 중인 신한자산운용은 "아직 상품 출시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국고채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 만큼, 자산 배분을 위한 장기 채권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해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 한국투자증권, 국내 첫 인니 워런트 시장 진출

#### 구조화워런트 상품 11종 상장

한국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거래소(IDX)에 구조화워런트(SW) 상품 11종을 상장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조화워런트는 한국 시장에서 주식워런트증권(ELW)로 불리는 구조화상품의 한 종류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열린 상장 기념식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제프리 헨드릭(Jeffrey Hendrik) 사업개발 담당 이사를 비롯한 IDX 주요 임원 10여명과 남경훈 인도네시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니국영은행(BMRI)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풀 워런트 1억2000만주와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업체 안탐(ANTM)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풀 워런트 1억5000만주 등 11종목을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첫 구조화워런트 상품을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총 60개의 구조화워런트를 발행했다.

구조화워런트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시장에 도입된 첫 파생상품으로 향후 주식선물·옵션 등 다른 파생상품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1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구조화워런트(SW) 상품 11종 상장 기념식에서 김성환(왼쪽 세번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제프리 헨드릭(왼쪽 네번째) IDX 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흥공과 인도네시아 워런트 시장에 진출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신한투자증권이 신한 SOL증권 앱에서 유료 투자정보 구독 서비스인 '분석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분석플러스' 서비스는 신한 SOL증권 앱에서 신규 도입한 투자 정보 월정액 구독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테마 관련 지표와 추이를 분석해 주는 테마분석과 수급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해주는 종목분석을 제공하고, 월 5900원으로 한 달간 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테마분석은 테마와 관련된 경기지수 등 계지표를 분석하고, 다양한 심리 지표를 통해 테마 내 종목들의 주가가 과열·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테마의 변동이 가장 컸던 기간의 이슈와 종목을 제공해 유망성이 높은 테마를 찾아주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성장성·수익성·가치 평가 등을 제공한다.

종목분석은 위험 가능성을 감지하고, 업종과 테마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주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기술적 분석 신호를 계산해 매수·매도 신호를 제공하고,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동종업계와 비교한 투자 지표(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를 보여준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 삼성증권 "해외주식 옮기고 최대 400만원 받으세요"

삼성증권은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간 내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후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 계좌로 대체입고(최소 1000만원, 입고 전일 증가기준)해야 한다.

입고 후에는 이벤트 기간인 10월 31일까지 1000만원 이상의 해외주식을 매매(체결 기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29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순입고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리워드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만원 대체입고 후 1000만원을 매매하면 1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한다. 순입고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리워드가 증가하는데, 최대로는 순입고액 30억원 이상을 대체입고 후 5억원 이상을 매매한 경우 400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 "中 대규모 경기 부양책 상승 모멘텀... 삼성전자 추가 하락 제한적"

#### 이번주 증시 전망

美 노동시장 둔화 우려는 하방 요인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 2540~2670선

이번 주(10월 14일~18일) 증시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0월 7일~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05%(27.20포인트) 상승한 2596.91에 장을 마

쳤다. 코스닥은 전주 대비 0.26%(2포인트) 오른 770.98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주 대비 15.80원 오른 1349.50원을 기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했다"며 "필수소비재, 금융, 조선·기계, 자동차, 소재 업종의 성과가 긍정적이었지만 통신, 유틸리티, 호텔·레저 업종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분기 부진한 실적의 영향으로 주가가 5만원대로 하락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 전체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로 2540~2670선을 전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신규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블랙웰

이 12개월치 예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힌 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함을 보여줬다"며 "글로벌 IB들은 중국이 2조~3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세부사항은 이달말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 우려는 증시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최근 주당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4년 4회차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신청기간: 2024. 10. 7.(월) ~ 10. 18.(금)

**신청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 고용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워크넷을 통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일정, 절차 관련 상세사항은 홈페이지(www.work24.go.kr) 공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 세부 일정**

- 신청서 접수: '24. 10. 7. ~ 10. 18.
-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4. 11. 4. (SMS 문자 및 고용24홈페이지)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조선업·광업 ('24. 11. 5. ~ 11. 8.)  
농·축산·어업·임업·서비스업(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 ('24. 11. 11. ~ 11. 15.)

\* 음식점업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 전 농림부·외식업종 연례대 사전교육 신청

